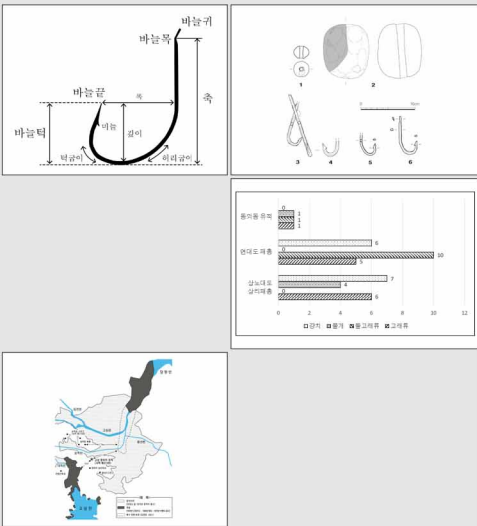




# 삼한 · 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어로문화

-고성 동외동 유적을 중심으로-

## Fishing Culture in the Goseong Region during the Sam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 Focusing on the Dongoe-dong Site in Goseong -

이수연  
기장군청 학예연구사

- I. 머리말
- II. 동외동 유적의 조사 성과
- III. 유적에서 출토된 어로구와 어로대상
- IV. 고성지역 어로집단의 특징과 성격
- V. 맺음말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삼한·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어로문화를 고성 동외동 유적을 중심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동외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이후 수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어로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실정이었다.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어로구는 직구침 형태의 낚싯바늘과 소량의 어망추가 확인되었으며, 패류는 굴·고동류·바지락·홍합 등 조간대·조하대 고정성 종이 주를 이루었다. 어류는 상어·가오리 등의 연골어류와 참돔·농어 등의 경골어류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고성지역 어로 활동은 주로 내수면 어로 양상을 보였으며, 연안 기수역에서 직구침을 이용한 낚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동시기 남해안 패총과는 다르게 인접한 두 곳의 내만(內灣)이 위치하여 효율적인 어로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채취 대상이었던 굴은 나무집게를 이용하여 채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어패류의 종 다양성은 남해안의 여타 패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고성지역 어로집단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어로를 병행하는 ‘겸업 어민’의 형태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동외동 유적, 겸업 어민, 고정성 패류, 내수면 어로, 어로

## I. 머리말

고성군은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북쪽으로는 진주시, 동쪽으로 통영시, 서쪽으로 사천시,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하고 있다. 이러한 고성군의 지정학적 입지는 삼한·삼국시대에 대외 교류의 요충지로 기능하였으며, 특히 소가야(小加耶) 왕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고대 고성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 및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고자국(古自國), 『日本書紀』에 나타나는 포상팔국(浦上八國) 전쟁과 관련된 문헌사료 분석(백승욱 1997, 2018; 허재혁 2005)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소가야의 정치체(김태식 2000; 이형기 1997)와 연관된 해석도 주요한 연구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고성 동외동 유적과 송학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이 지역의 고대 정치체 형성 시기와 권역 설정, 권력 구조의 변천, 그리고 대외 관계망에서의 소가야 정치체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규운 2018; 권용대 2007; 박승규 2005; 여창현 2023; 하승철 2018)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록 고고학적 조사가 고성 분지 내 지배 집단의 형성과 전개 과정 및 외래계 유물을 통한 대외 교류 양상에 관한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고대 고성지역의 생업과 관련된 미시적 접근, 특히 어로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까지 보고된 동외동 유적의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고성지역의 생업 활동 중 어로문화를 복원하고자 한다. 우선, 동외동 유적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을 검토하여 어로구(漁撈具)의 유형과 어획 대상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세 지도, 근대 어업보고서, 민속자료 등과 비교함으로써 고성지역 어로집단의 어장의 분포, 어로구 사용 및 집단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 과정을 통해 고대 고성지역에서 이루어진 어로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과 문화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Ⅱ. 동외동 유적의 조사 성과

고성지역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동북에서 서남으로 뺨은 지맥 구조를 보이며, 서북 측이 고도가 높고 동남 측은 남해에 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을 이룬다. 지역 내에는 해발 200m를 넘는 고지대나 대하천은 존재하지 않고 서부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들은 고성 분지 중심부를 관통하여 사방으로 흐른다. 하류 일대는 고성 평야를 중심으로 한 해안 평야가 전개되며, 이는 고성지역의 주요 생활 기반이자 농업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고성군의 연안은 주로 남쪽에 있지만 동쪽으로 진해만과 접하는 구간도 존재한다. 남쪽 연안에는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돌출된 지역과 큰 만이 분포하며, 특히 동외동 유적 인근에는 고성만이 형성되어 있다. 고성만의 수심은 만의 입구에서 수심이 15~21m에 이르며,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6~9m의 얕은 수심을 보인다. 이 지역의

[표 1] 동외동 유적 및 주변 유적 현황(그림 1과 연번 동일함)

| 연번 | 위치              | 유적명(조사기관)                     | 조사연도      | 주요 유구                  |
|----|-----------------|-------------------------------|-----------|------------------------|
| 1  | 동외리<br>254번지 일원 | 고성패총<br>(국립중앙박물관)             | 1969~1970 | 패총                     |
|    |                 | 고성동외동패총<br>(동아대학교박물관)         | 1974      | 옹관묘, 석관묘, 토광묘, 야철지     |
|    |                 | 고성동외동유적<br>(국립진주박물관)          | 1995      | 의례수혈, 주거지, 패총, 묘역, 야철지 |
|    |                 | 고성 동외동유적<br>(삼강문화재연구원)        | 2021      | 주거지, 패총, 환호, 수혈        |
|    |                 | 고성 동외동 유적Ⅱ<br>(삼강문화재연구원)      | 2022      | 주거지, 패총, 대지조성층         |
|    |                 | 고성 동외동 유적<br>(경상문화재연구원)       | 2023      | 패총, 성토구조물              |
| 2  | 성내리 379번지 일대    | 고성읍성지<br>(동아대학교박물관)           | 2003~2004 | 수혈, 소토유구               |
| 3  | 송학리 309-1번지     | 송학리 309-1번지 유적<br>(한겨레문화재연구원) | 2010      | 주거지, 수혈                |
| 4  |                 | 송학리 309-1번지 유적<br>(해동문화재연구원)  | 2020      | 석곽묘, 수혈                |
| 5  | 송학리 309-1 일원    | 송학동패총                         | -         | 패총                     |
| 6  | 송학리 470번지 일원    | 송학동 고분군<br>(동아대학교박물관)         | 1999      | 석곽묘, 석실묘               |
| 7  | 율대리 797-5번지 일원  | 율대리 고분군<br>(국립진주박물관)          | 1989      | 다곽식봉토분                 |
| 8  | 동외리 369-1 일대    | 동외리 남산토성                      | -         | 토성                     |
| 9  | 대독리 산101-1 일원   | 대독리 만림산토성<br>(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20      | 토성                     |

연안은 비교적 먼 거리까지 얕으며 간조 시에는 갯벌이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특징을 가진다(농상공부 수산국 2023b).

고성지역의 연구는 동외동 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크게 진전되었으며, 그 조사 현황은 [표 1]과 같다. 동외동 유적은 1914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최초로 확인되었으나, 당시의 조사 경과 및 세부 내용에 관한 기록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69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의 구릉 서남사면 조사에서는 패각층과 주거지 등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974년에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긴급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옹관묘·석관묘·토광묘와 함께 야철지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청동검과, 광형동모, 한경, 야요이 토기 등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어, 고성지역이 삼한·삼국시대 대외 교류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1995년에는 국립진주박물관이 정상부 평탄지와 남동쪽 사면 일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유구들이 공간적으로 분할 배치된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정상부에서는 제사시설로 추정되는 중복 수혈과 함께 조문청동기가 출토되어 주목을 끌었다. 아울러 동사면에서는 주거지, 남서사면에서는 야철지, 패총, 토축 구조물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후 2021년에는 고성군 가야사 복원 사업의 목적으로 정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조사에서는 삼한·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패총, 주거지, 환호, 수혈, 구상유구, 주혈, 중앙광장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유적의 전체적인 구성과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서 2022년 조사에서는 주거지, 고상건물지, 패총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1995년 조사 당시 확인된 토축 구조물이 성토로 조성된 사실도 밝혀졌다. 최근 2023년에는 정상부 동남쪽 구역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어 패총과 성토구조물의 일부가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되었으며, 2024년 국가유산청에 의해 동외동 유적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고성 동외동 유적은 고대 고성지역 정치체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한편, 고성지역에서는 동외동 유적 이외에도 주거지, 고분군, 성곽 등 다양한 유적이 다수 발굴되었다. 동외동 유적과 유사한 시기에 축조된 유적으로 고성읍 중심에 있는 고성읍성지 유적(동아대학교박물관 2006)과 동외동 유적에서 북서쪽으로 600m정도 떨어진 송학리 309-1번지(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가 있으며, 이들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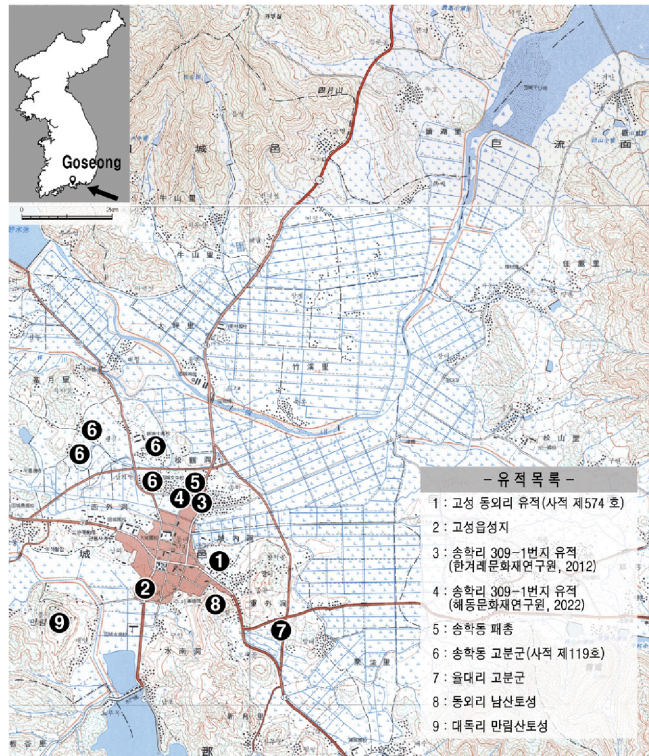
적에서는 주거지와 수혈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또한 동외동 유적과 유사한 성격의 유적으로는 송학동 패총도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동 시기에 생활 유적이 넓게 분포하는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정주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유적의 분포는 주변 자연환경과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반영하며, 공동체 내에서 농경·어로·수렵 등의 다양한 생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동외동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시기 남해안에서 확인되는 패총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고지성 집락으로 보는 견해와 의례 관련 유구 출토를 근거로 제장(祭場)으로 보는 견해가 최근 제시되고 있다.

고지성집락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구릉 정상부를 둘러싼 소규모 환호와 주거지, 패총의 결합은 김해·창원·양산 등 남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환호와 대지 조성층은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군사적 거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소배경 2022).

반면, 제사와 관련된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구릉 정상부 중앙광장 북측의 제의 수혈에서 출토된 새 무늬청동기와 이중 환호에서 출토된 화천(大泉五十), 토성 내부에서 출토된 개궁모, 통형기대, 고배 등의 고급 토기들은 해당 유적이 소가야 최고 신분의 왕자 또는 제사장이 거주하며 제례를 수행한 제장(祭場)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이동희 2023).



[그림 1] 고성지역 주요 유적 분포 [출처: 1973년 고성 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 Ⅲ. 유적에서 출토된 어로구와 어로대상

패총 유적은 선사시대와 고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인공유물과 자연유물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의 문화상을 규명하는데 최적의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패총에서 출토되는 패류, 어류, 포유류 등의 자연유물은 수렵·채집·어로를 중심으로 하는 생업 경제 활동의 단서를 제공한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삼한·삼국시대의 패총이 다수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농경이 사회 변화를 촉진한 중요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원화된 생업 구조는 재해에 취약하고 생산 안정성이 낮으며,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농경 이외의 다양한 자원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생업 구조가 병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업에 관한 연구 중에서 어로와 관련된 연구는 생업 구조의 다변성과 해양 자원의 이용, 지역 간의 교류와 같은 삼한·삼국시대의 다층적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사실 어로문화에 관한 연구는 신석기시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김건수 1999; 이영덕 2006; 하인수 2006). 반면, 삼한·삼국시대 어로문화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가야의 어로문화에 대한 논의(곽종철 2003)를 비롯하여 유적에서 출토된 포획물과 어로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김재홍 2015; 유병일 2012)의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방대한 고고학 자료와 증가량에 비해 최근 관련 연구는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성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어로구(漁撈具)와 어획물은 당시의 어로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성지역에서는 동외동 유적과 송학동 고분에서 어로와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유적에서 출토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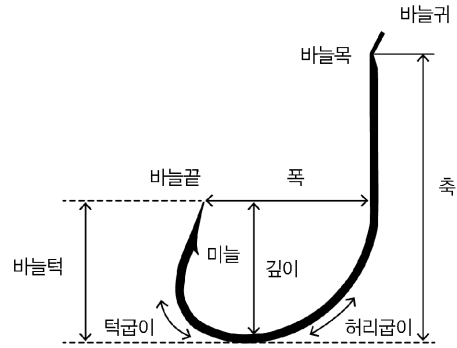
#### 1. 어로구

어로(漁撈, Fish catching)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捕獲, Capturing)하거나 채취(採取, Gathering)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어로에 사용되는 도구를 어로구(漁撈具, Fishing gear)라고 한다.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주요 어로구로는 낚시, 어망추가 있으며 각 어로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낚시와 어망추

낚시는 낚싯줄 한 가닥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바늘을 낚싯대나 손에 부착하여 직접 대상물을 낚아 올리는 어로구이다.

낚싯바늘의 구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늘끝(point)과 미늘(barb) 그리고 귀(eye) 부분이다. 물고기를 단번에 효과적으로 꿰기 위해서는 끝이 날카로워야 하며, 물고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미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바늘을 낚싯줄에 견고하게 묶기 위해 귀 부분이 필요하다. 낚싯바늘의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턱과 허리 부위의 길이 및 구부러지는 각도가 있으



[그림 2] 낚싯바늘의 구조

며, 이들 요소는 모두 대상 어종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된다(예조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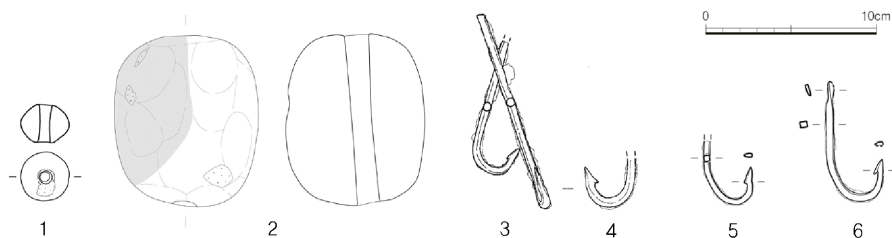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낚싯바늘은 모두 4점이다. 낚싯바늘의 바늘귀는 바늘 몸통과 일직선인 직선형 바늘귀가 확인된다. 직선형의 바늘귀는 미끼 꿰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숙련도가 높은 경우 외반형 바늘귀보다 매듭 강도가 강하고 안정적인 특징이 있다.

축은 깊이에 비해 길게 제작되어 대상 어종이 바늘을 물었을 때 바늘이 입안에서 수평으로 길게 위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작은 입을 가진 어종도 쉽게 포획할 수 있어 포획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어종이 바늘을 삼켰을 경우 바늘 제거가 쉬우며, 물속 암초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늘은 걸려든 대상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이다.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낚싯바늘 미늘은 내미늘 형태이다.<sup>1)</sup> 일반적으로 내미늘은 외미늘에 비해 포획물이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기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바늘끝은 바늘 몸체와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형태인 직선침을 가진다. 직선침은 관통력이 뛰어나 단단한 입천장도 잘 뚫어 대형 어종에 유리한 바늘 형태이다. 바늘이 물고기 입안에 제대로 박히도록 낚싯대를 빠르게 잡아채는 훅셋(hookset) 낚시에

1) 미늘의 위치에 따라 무미늘낚시, 내미늘낚시, 외미늘낚시, 양미늘낚시로 구분할 수 있다(김건수 1999).



[그림 3] 고성지역 출토 어로구

[1:고성 동외동 유적Ⅱ(삼강), 2: 고성 동외동 유적(경상), 3·4: 송학동 고분(동아대박물관), 5·6:고성 동외동 유적(삼강)]

주로 쓰이며 숙련도가 있어야 하는 낚시바늘이다.

어망추는 총 2점이 출토되었으며, 모두 연질에 구형(球形)으로 소형과 대형 각각 1점씩 확인된다. 먼저 소형의 구형 어망추는 유물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토주(土珠)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게와 형태 및 출토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낚시용 봉돌의 가능성이 있다. 현대 낚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봉돌이 사용되는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소형의 구형 어망추는 원형과 주판알형으로 구분된다. 원형은 바닥에 닿아도 쉽게 굴러 이동할 수 있어 바닥이 거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주판알형은 원형보다 바닥에서 쉽게 굴러가지 않아, 미끼를 바닥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할 때 적합한 형태이다.

동외동 유적의 어망추는 수량이 매우 적고, 동시기 대부분의 패총에서 확인되는 관상형 어망추는 출토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동외동 어로집단은 자망을 이용한 어로 활동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어로대상

패총은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섭취 후 폐기한 조개껍데기를 주로 포함하는 유적이지만, 보존이 어려운 동물 뼈 등의 다양한 자연 유물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패총은 당시의 식생활을 이해하고 생업 활동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유적에서 출토되는 어패류는 종 동정(同定)을 통해 어로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대상물의 잔존 상태와 서식지 등을 고려하여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자원을 획득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동외동 패총에서 출토된 자연유물은 패각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류·해양포

유류 뼈 등도 함께 확인되어 당시 어로 활동에 대한 생업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에 개별 유적에서 보고된 자연유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 어로 활동으로 포획된 대상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패류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패류는 총 33종으로, 대부분은 해수산 조간대 패류로 구성되어 있다. 패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이매패강이 17종, 복족강이 16종이며, 담수산 패류도 2종도 포함되어 있다.

출토 수량으로 비교해 보면, 참굴·고동류(점갯고동, 동다리 등)·바지락·피뿔고동·갯우렁이·홍합·가무락조개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sup>2)</sup>

우선 굴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조하대 암반에 붙어살지만, 수심 5~40m에도 많이 서식한다(김지민 2024). 유적에서 굴의 출토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굴의 성장조건이 양호하고 포획지역이 인접해 위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동류는 점갯고동, 동다리 등을 묶어 보고하고 있다(삼강문화재연구원 2023). 흔히 유적에서 출토되는 나사 형태의 고동류로는 갯고동, 동다리, 비틀이고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고동류도 굴과 마찬가지로 암반에 붙어 사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점갯고동의 경우 해조류나 암반에 붙어 다니면서 서식하는 특징이 있다.

굴과 고동류가 주요 채취 대상이었으면 이외의 패류에서는 출토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먼저 바지락은 전체 출토량의 5%에 해당한다. 바지락은 조간대 수심이 약 5m 이하의 갯벌과 모래에서 서식하는 가장 흔한 종류의 패류이다.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서 자라는 특성으로 양식이 쉬운 패류로서 산란기를 준비하는 3~5월이 살이 가장 많이 오르며 이때가 가장 맛있다(김지민 2004). 참고로 바지락은 군곡리 패총에서 출토된 종의 성장선 분석을 통해 주요 포획 시기가 늦겨울부터 봄까지 집중되었다는 연구 사례도 있다(김건수 1996).

피뿔고동은 서해 및 남해안 일대에 흔히 나는 대형 패류이다. 바위와 자갈이 섞인 해변가를 비롯해 조간대 수심인 10~20m 저질의 모래나 갯벌, 진흙에 많이 분포한다. 제철은 가을부터 봄이다(김지민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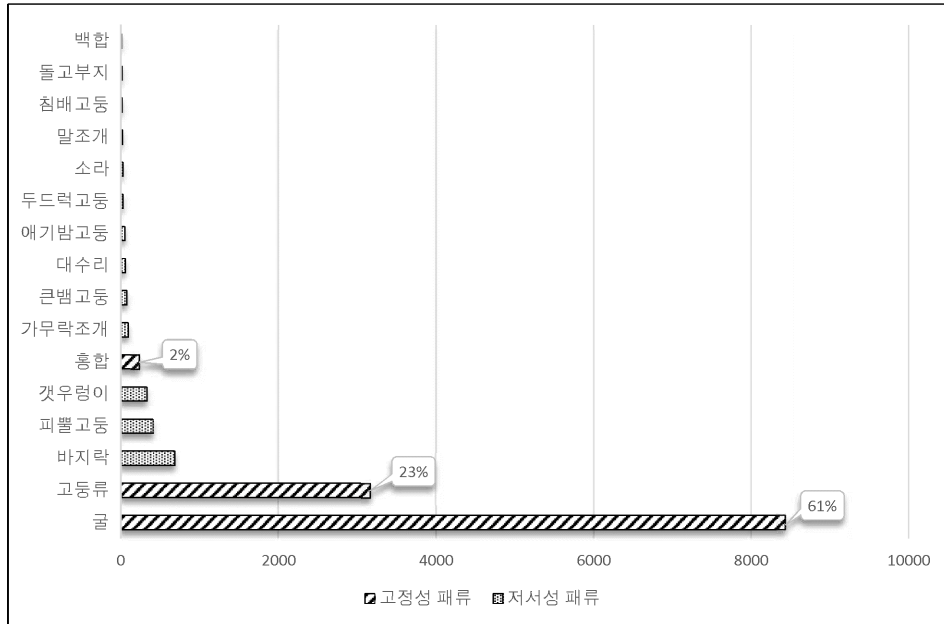
2) 패류의 출토량은 고성 동외동 패총(동아대학교박물관 1984)과 固城 東外洞 遺蹟(삼강문화재연구원 2023)에서 보고된 패류를 합친 수량이다.

[표 2] 동외동 유적 출토 패류 현황

| Class            | 구분 | 종(Species)                               |         | 조사기관 <sup>3)</sup> |    |     |     |    |
|------------------|----|------------------------------------------|---------|--------------------|----|-----|-----|----|
|                  |    | 영문명 <sup>4)</sup>                        | 한글명     | 동박                 | 진박 | 삼강* | 삼강* | 경상 |
| 이<br>매<br>패<br>강 | 해수 | <i>Anadara kagoshimensis</i>             | 새꼬막     | ○                  |    |     |     |    |
|                  |    | <i>Tegillarca granosa</i>                | 꼬막      |                    |    | ○   |     |    |
|                  |    | <i>Mya arenaria</i> Linnaeus             | 우럭      | ○                  |    |     |     |    |
|                  |    | <i>Mytilus unguiculatus</i> Valenciennes | 홍합      |                    |    | ○   | ○   |    |
|                  |    | <i>Magallana gigas</i>                   | 굴       | ○                  | ○  | ○   | ○   | ○  |
|                  |    | <i>Magallana nippona</i>                 | 바위굴     | ○                  |    |     |     |    |
|                  |    | <i>Ostrea denselamellosa</i> Lischke     | 토굴      | ○                  |    |     |     |    |
|                  |    | <i>Mizuhopecten yessoensis</i>           | 큰가리비    |                    |    | ○   |     |    |
|                  |    | <i>Macra quadrangularis</i> Reeve        | 동죽      | ○                  |    |     |     |    |
|                  |    | <i>Spisula sachalinensis</i>             | 북방대합    |                    |    |     |     |    |
|                  |    | <i>Tresus Keenae</i>                     | 왕우럭조개   | ○                  |    |     |     |    |
|                  |    | <i>Neotrapezium liratium</i>             | 돌고부지    |                    |    | ○   |     |    |
|                  |    | <i>Cyclina sinensis</i>                  | 가무락조개   | ○                  |    | ○   |     |    |
|                  |    | <i>Meretrix lusoria</i>                  | 백합      | ○                  |    | ○   |     |    |
|                  |    | <i>Ruditapes philippinarum</i>           | 바지락     | ○                  |    | ○   |     | ○  |
|                  |    | <i>Saxidomus purpurata</i>               | 개조개     | ○                  |    |     |     |    |
|                  | 담수 | <i>Unio douglasiae</i>                   | 말조개     |                    |    | ○   |     |    |
| 복<br>죽<br>강      | 해수 | <i>Bostrycapulus gravispinosus</i>       | 침배고둥    |                    |    | ○   |     |    |
|                  |    | <i>Laguncula pulchella</i> Benson        | 갯우렁이    | ○                  |    |     |     |    |
|                  |    | <i>Neverita didyma</i>                   | 큰구슬우렁이  | ○                  |    |     |     |    |
|                  |    | <i>Thylacodes adamsii</i>                | 큰뱀고둥    | ○                  |    | ○   |     |    |
|                  |    | <i>Neptunea despecta</i>                 | 갈색띠매물고둥 | ○                  |    |     |     |    |
|                  |    | <i>Ocenebrellus inornatus</i>            | 어깨뿔고둥   |                    |    | ○   |     |    |
|                  |    | <i>Rapana venosa</i>                     | 피뿔고둥    | ○                  |    | ○   |     |    |
|                  |    | <i>Reishia bronni</i>                    | 두드럭고둥   | ○                  |    | ○   |     |    |
|                  |    | <i>Reishia clavigera</i>                 | 대수리     |                    |    | ○   |     |    |
|                  |    | <i>Chlorostoma xanthostigma</i>          | 명주고둥    | ○                  |    | ○   |     |    |
|                  |    | <i>Tegula nigerrima</i>                  | 애기밤고둥   |                    |    | ○   |     |    |
|                  |    | <i>Lunella correensis</i>                | 눈알고둥    |                    |    | ○   |     |    |
|                  |    | <i>Turbo cornutus</i>                    | 소라      | ○                  | ○  | ○   |     | ○  |
|                  |    | <i>Balanidae</i>                         | 따개비과    | ○                  |    |     |     |    |
|                  |    | <i>Gastropoda</i>                        | 고둥류     |                    |    | ○   |     |    |
|                  | 담수 | <i>Smisulcospira forticosta</i>          | 주름다슬기   | ○                  |    |     |     |    |

3) 조사기관의 유적은 다음과 같다(동박: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진박: 國立晉州博物館 2003, 삼강\*: 三江文化財研究院 2023, 삼강\*: 三江文化財研究院 2024, 경상: 경상문화유산연구원 2025).

4) 종명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2022b)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다양성정보포털(<https://fbp.nnibr.re.kr/portal/>)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4] 고성 동외동 유적 패류의 동정가능표본수(NISP)

홍합은 수심 5~10m 조하대 바위에 붙어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산란은 6~8월경에 이뤄지며,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 사이 소비된다(김지민 2024).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패류는 종의 동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량 자료도 함께 보고되었다. 고고학에서 자연유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때 동정가능표본수(NISP, Number of Identified Specimens)와 최소개체수(MNI, Minimum Number of Individuals)가 주요 지표가 활용된다. 동정가능표본수(NISP)는 동정 가능한 유물의 조각 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지만, 동일 개체의 중복된 부위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개체 수보다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최소개체수(MNI)는 중복되지 않는 해부학적 요소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개체 수를 산정함으로써, 출토 자연유물의 분포 경향과 양상을 보다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는 고대인들이 어떤 종을 주로 포획하였는지, 그리고 그 상대적인 비중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며, 유물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당시 생업 활동과 식생활 양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패류의 서식 환경은 조간대와 조하대의 인근 연안으로, 육안 관찰과 직접 채취가 가능한 패류라는 것이다. 특히 확인된 패류 중 가장 큰 특징

은 고정성 패류(Sessile mollusks)의 비율이 전체의 86%로,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이다. 고정성 패류는 바위, 암반, 해조 등 단단한 표면에 붙어 서식하며, 움직이지 않고 한곳에 고정된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고정성 패류로는 굴과 고둥류,<sup>5)</sup> 홍합이 있다. 대체로 조하대 및 조간대 암초에 서식하며 간조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노동 행위 없이 채취할 수 있다.

반면, 저서성 패류(Benthic mollusks)는 갯벌, 모래, 진흙 바닥 등에 묻혀 있거나 자유롭게 기어다니며 바닥 위 또는 내부에서 생활하는 이동성이 있는 패류를 의미한다. 유적에서 출토된 갯우렁이, 피뿔고둥, 가무락조개, 큰뿔고둥, 대수리, 애기뿔고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정성 패류의 채취는 바위나 암반에서 패류를 떼어내거나 긁어내기 위한 맨손어구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저서성 패류의 채취는 갯벌이나 모래, 진흙 등을 파내는 방식의 맨손어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획된 패류의 계절성은 육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산란기 이전, 즉 11월부터 5월까지가 주요 채취 시기로 판단된다.

## 2) 어류 및 해양포유류

동외동 유적에서는 총 4종의 해수산 어류가 확인되었다. 출토 어류는 남해안지역의 대표적인 포획 어종인 상어류, 참돔, 농어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상어류는 유적에서 척추뼈만 출토되었다. 상어는 식용으로 선사시대부터 활용된 중요한 어류로 평가된다. 내만에서의 상어 포획은 주로 외줄낚시와 연승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멸치 때 등 소형 어류를 쫓아 들어온 상어를 대상으로 한다.

가오리류는 유적에서 꼬리뼈(尾鰭)의 형태로 출토된다. 이는 연골어류가 척추뼈와 꼬리뼈를 제외한 대부분의 골격구조가 연골로 구성되어 있어, 뼈가 유적에 잔존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꼬리뼈의 출토는 가오리류가 실제로 포획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된다. 가오리 중에서도 노랑가오리는 통영과 고성 앞바다에 다수 서식하는 종으로, 남해안에서는 산란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12월부터 3월 사이가 주 어획기로 알려져 있다(김지민 2024). 한편, 가오리류와 유사한 홍어류를 포획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주낙(낙시), 각종 그물류, 돌살 등이 사용되었음이 민족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김진수 2008).

5) 고둥류 중에 갯고둥은 바위나 조개껍데기, 모래 또는 진흙 바닥에 붙어나 서식하는데 고정성보다는 부착성 패류에 가깝다.

참돔은 봄철 산란을 위해 북상하는 계절 회유어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 고루 서식한다. 산란철인 4~6월에는 얕은 바다로 이동하며 그물에 집단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참돔의 체철은 겨울에서 초봄까지로 알려져 있다(김지민 2024).

[표 3] 동외동 유적 출토 어류 및 해양포유류의 동정가능표본수(NISP)

| 구분     | Class | 종(Species)                   |       | 조사기관 |     |     |
|--------|-------|------------------------------|-------|------|-----|-----|
|        |       | 영문명 <sup>6)</sup>            | 한글명   | 동박   | 삼강* | 삼강* |
| 어류     | 조기강   | <i>Pagrus major</i>          | 참돔    |      |     | 6   |
|        |       | <i>Lateolabrax japonicus</i> | 농어    |      | 1   |     |
|        | 연골어강  | <i>Selachimorpha</i>         | 상어류   |      | 1   |     |
|        |       | <i>Batoidea</i>              | 가오리류  |      | 3   |     |
| 해양 포유류 | 포유동물강 | <i>Callorhinus ursinus</i>   | 물개    | 1    |     |     |
|        |       | <i>Odontoceti</i>            | 대형고래류 |      | 3   |     |
|        |       | <i>Delphinidae</i>           | 돌고래류  |      | 1   |     |

농어는 전장 1m 정도까지 성장하는 대형 어종이나, 주로 포획되는 개체는 50~80 cm 내외이다. 봄에서 여름까지는 먹이활동을 위해 육지와 가까운 바다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업 배에 자주 잡히며,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산란을 위해 먼바다 심해로 이동하는 계절 회유성 어종이다. 유어기에는 담수를 선호하여 강 하구의 기수역에 많이 서식하며, 이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지역에 풍부한 먹이가 존재하며 농어의 뛰어난 담수 적응력 때문이다. 또한 멸치가 주요 먹이이므로 멸치 떼가 들어오면 이를 따라 수면에서 떼를 지어 다니기도 한다.

참고로 농어는 여름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증가하기에 제철도 여름으로 인식하지만, 이는 지역과 위도, 그리고 세부종에 따라 9월부터 2월까지 매우 폭넓다. 동해 남부를 비롯해 남해안 전역에 서식하는 농어는 주로 12~1월을 전후로 산란한다. 11~12월에 잡힌 농어는 알집이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 살집이 두껍고 지방도 충분히 있어 가장 맛이 좋다(김지민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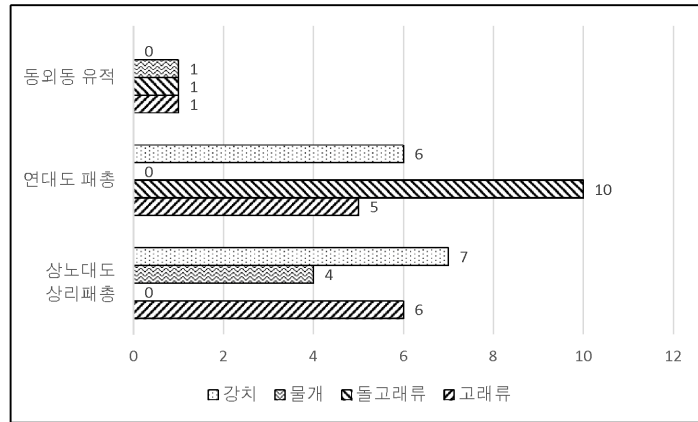
상어류를 제외한 동외동 유적 출토 어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얕은 바다 또는 연안 기수역에 서식한다는 점이다. 가오리류는 저질의 바닥을 선호하며, 참돔과 농어는 기수역에서 낚시로 포획이 가능한 어종이다. 상어류는 연안 또는 심해에 서식하지만,

6) 종명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2022a)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연안 가까이로 전갱이 등의 소형 어류가 접근할 시기에 함께 포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류의 계절성은 겨울부터 봄이 주요 포획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돔과 농어의 경우 서해안의 어획 시기가 여름~가을에 집중된 점(김건수 2001; 안덕임 2017)과, 남해안의 어획 시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회유 시기에 따른 계절적인 차이로 판단된다.

동외동 유적에서는 어류 외에도 물개와 고래류가 확인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개의 대규모 서식지가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물개는



[그림 5] 고성만과 외해에 위치한 유적의 해양포유류 최소개체수(MNI)

무리에서 이탈한 개체이거나, 외부에서 반입된 포획물일 가능성이 있다.

고래류는 선사시대부터 주요 포획 해양포유류로 알려져 있다. 동외동 유적에서도 고래류의 자연유물이 확인되지만, 그 수량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먼 바다로 나가 직접 수렵하여 포획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주로 해안에 밀려온 사체를 이용하거나 연안에서 우연히 포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은별 2023).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해양포유류의 동정가능표본수는 고래류 척추골 2점 · 지골 1점, 돌고래류 척추골 1점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고성만과 접해 있는 남해 외해의 신석기시대 패총인 상노대도 상리 패총 및 연대도 패총의 고래 출토량(이충민 2011)과 비교하면, 동외동 유적에서 고래 출토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출토 양상을 고려해 보면, 해양포유류의 내만으로의 회유 가능성은 낮으며,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고래류는 외부에서 반입되었거나 앞서 언급한 좌초된 개체일 가능성이 높다. 좌초한 고래(Stranding)는 지역 공동체에 있어 큰 구경거리이자 중요한 영양 섭취원의 재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남종영 2024).

## Ⅳ. 고성지역 어로집단의 특징과 성격

고성지역은 해안과 인접하여 주변 세력과의 교류가 쉬우며, 교역망 확보에서도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외동 유적이 위치한 고성읍은 해안과의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비교적 넓은 범위의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어 고대 정치체를 형성하고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앞서 고성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어로구 및 포획 중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와 어망추가 확인되었으며 총 33종의 패류, 4종의 어류, 3종의 해양 포유류가 주요 포획 대상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어로구 및 포획 중의 분석을 토대로 고성지역 어로집단의 활동 양상과 그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유적 입지와 어로 활동의 관계

유적의 입지 조건은 어로 활동의 범위 설정 및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고대 동외동 유적이 형성될 무렵 고성지역의 경관은 2,300년 전 해퇴로 인하여 고성만 일대는 갯벌이 형성되었고, 당항만 일대는 습지가 형성되었다. 이후 3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러 해수면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고성만은 기항이 가능한 내만의 형태가 유지하였으며, 고성천 일대에서는 습지를 활용한 가경지 확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김정윤 2021; 여창현 2023).

이를 고려할 때, 동외동 어로집단의 주요 어로 대상지는 고성만과 당항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성만은 동외동 유적지



[그림 6] 삼한·삼국시대 고성지역 어로 대상지

로부터 남서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하며, 당항만은 북동쪽 약 1.5km 거리에 있다. 두 만이 인접해 위치한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남해안 일대의 동시기 패총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하나의 내만(內灣)만을 지닌 동시기 패총과는 달리 인접한 거리에 두 개의 내만이 존재하는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기후 조건과 해류 및 계절적 요인에 따라 유연한 어로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성만 연안은 비교적 수심이 얕고 간조 시에는 광범위한 갯벌이 드러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환경은 굴, 고동, 바지락, 피뿔고동, 홍합 등 다양한 생물의 풍부한 서식 조건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연안 기수역에서 저서성 어종과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낚시 등의 어로 활동도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항만 역시 광범위한 갯벌을 통해 패류 채취의 적합한 환경으로, 외해로의 직접적인 이동에는 제한이 있으나, 인접한 진동만 및 마산만과 연계되어 수운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동외동 유적은 남해안 일대의 동시기 패총과 비교할 때 어획지로의 이동방식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동시기 남해안 대부분의 패총이 어획지까지 주로 하천을 이용한 반면, 동외동 어로집단은 주변에 고성천을 제외하고 인접한 하천이 확인되지 않아 하천을 통한 이동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외동 집단이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하천의 확인이 필요하다. 동외동 유적과 송학동 고분·패총이 위치한 지역 사이에는 ‘송학천’이라 불리는 소규모 하천이 존재한다. 조선 후기의 『여지도(輿地圖)』(1736~1767년 편찬)와 『지승(地乘)』(1776년 편찬) 등 고지도와 최근 발표된 고환경 자료(김정윤 2021)에서도 송학천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현재는 복개되어 육안으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고성천과 용산천의 합류 지점을 기준으로 하천의 흐름을 복원해 보면, 송학천이 송학동과 동외동 지역을 관통하여 고성천과 합류하는 수계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sup>7)</sup> 즉, 송학천의 존재는 동외동 어로집단이 단순히 도보 이동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천을 이용한 어로 활동도 병행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두 내만 사이에 위치한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풍부한 어장을 통한 어패류 어획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성만을 통한 해상 교류와 당항만을 통한 내륙 이동에도 적합한 입지였음을 알 수 있다.

7) 송학천의 복개 시작점은 서외리 8-5번지, 복개 종료점은 송학리 260-33번지에 해당한다.

## 2) 어패류를 통해 본 어로집단의 특징

고성지역의 내만은 모두 반폐쇄성 내만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보이며, 유속이 빠르지 않고 외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만 내부의 수심은 매우 얇고 하천을 통해 공급되는 유기물은 하구에 퇴적되어 조간대 전역에 광범위한 갯벌이 형성되게 하였다. 이러한 지형환경적 특성은 내수면 어로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한다.

동외동 어로집단은 내만 조간대와 조하대 패류를 채취하고, 연안의 암초 지대를 중심으로 내수면 어로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굴과 고둥류 등의 고정성 패류는 이들의 주요 식자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정성 패류를 대상으로 한 어로 활동은 채취의 편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굴의 경우 바위나 돌에 부착하여 자라므로 눈에 쉽게 띄고 채취가 쉽지만, 저서성 패류는 모래나 진흙 속에 묻혀 있어 효율적인 채취가 어렵다. 또한 굴은 집단 서식 형태를 가지므로 집중적인 채취가 가능하며, 육량과 맛이 보장되어 중요한 식자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많은 양의 굴을 채취하는 구체적 방법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유적에서는 어로구의 출토량이 현저히 적으며 남해안 일대에서 흔히 출토되는 녹각제도자 병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유적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유기물 형태의 도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기록에 따르면(농상공부 수산국 2023a) 굴 채취 시 목제 집계를 사용했다는 기사가 있다.

그 채수법은 함경도에서는 어선에 2~3인이 승선하여 굴 서식장에 이르면,  
먼저 수간으로 어선을 고정시키고  
나무로 된 긴 작대기가 달린 갈퀴로 긁어 올리거나  
또는 나무로 된 조개집계[木製具狹]로 집어 올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또한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망덕포구의 강어로와 관련된 구술자료(박종오 2014)에도 집계를 이용한 굴 채취 내용이 확인된다.

나무나 여문나무, 이렇게 생긴 나무를 가지고 깎았어.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깎아 가지고 인자 끝부분만 쇠로하고, 이 부분만 쇠로하고, 원리가 연탄집게 원리.  
이 부분을, 이거 이 부분은 내가 개조해 놓았으니까. 인자 그게 나무가 인자 저  
없고, 우리는 인자 못 만드니까 내가 인자 쇠로 가지고 개조를 한거지.

이 자료는 굴 채취용 나무집게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쇠로 개조한 사례에 관한 구술이다. 자료의 배경인 망덕포구에서는 추수가 끝나는 11월에서 12월경에 강굴 채취가 시작되어 이듬해 4월까지 굴집게를 이용해 강굴을 채취하였으며, 주로 간조 시에만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동외동 유적의 어로 집단 역시 굴 채취를 위해 위와 유사한 형태의 목제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어류 포획에서는 어로집단의 전문성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특히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직구침 형태의 낚싯바늘은 마산만 일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외구침 형태의 낚싯바늘(동서문화연구원 2012)과는 달리, 특정 어종을 포획할 수 있는 특화된 형태를 보인다. 직구침은 저서성 어류인 가오리류나 상어류를 포획하는데 더 적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해삼·굴 집게(국립수산물박물관 2024)

어획된 어패류는 거주지로 이동해 직접 소비되거나 젓갈과 같은 발효식품으로 가공되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젓갈은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법으로 오래전부터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예로 신라 신문왕 3년(683년)의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보낸 예물중에도 장(醬)·시(豉)·포(脯)와 함께 젓갈(醃)이 포함된 사례와 안압지 꼬리표 목간에서 확인되는 가오리(可火魚)와 전복(生鮑) 기록(이용현 2007)은 삼국시대 가오리와 같은 생선 젓갈이 식생활에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sup>8)</sup>

### 3) 어로대상의 다양성과 집단의 성격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패류 및 어류의 다양성은 남해안 내 다른 패총과 달리 수량과 종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고성지역의 내만이 반폐쇄성 내만 구조로 되어 있어 외해 어종의 유입이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어종 다양성이 저

8) 참고로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1호선 출수 고려 목간과 죽찰에 기록된 음식물에는 젓갈류인 게젓(蟹醃)과 고등어젓(古道醃)이 있으며, 발굴된 유물에도 게, 갈치, 밴댕이, 전어, 정어리 등의 젓갈로 추정되는 유물이 확인되었다(김정옥 2010).

하된 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해만에 있는 마산만은 폐쇄성 내만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양한 어로종이 포획되었으며, 어로구에서도 다량의 어로 자원이 확인됨에 따라, 어로종 다양성의 저하는 단순히 지형 및 환경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된 어로종의 낮은 다양성은 동외동 집단이 식량 압박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비록 패류의 체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패류 크기 선별이 채취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특정 패류의 집중적 채취 양상은 해당 서식 환경이 양호하였고, 어로 강도 역시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식자원의 밀도와 낮은 생물종 다양성은 정착 생활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제임스 C.스콧 2019). 다시 말해, 동외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어로구의 단순성과 어종의 낮은 다양성, 그리고 고정성 패류에 집중된 출토 양상은 일정 수준의 생업 경제에 적응한 정착 집단의 존재를 시사한다. 해당 정착 집단은 어로에만 의존하는 일원화된 생업 방식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수산물은 곡물에 비해 열량 및 저장 측면에서 식량 자원으로서의 효용이 낮은 편이므로 어로 활동만으로 일상적인 식생활을 충족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적에서 출토된 어패류의 계절성이 주로 겨울과 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어로 활동에 계절적 제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된다.

따라서 고성지역의 정착 생활은 해양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취락 구조를 띠고 있지만 어로 위주의 생계유지는 어려우므로 타 생업 활동과의 병행이 필수적이었던 복합 생업 체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고성지역의 어로집단은 전업 어민이라기보다는 농경 등 타 생업 활동을 병행한 겸업 어민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생업 활동의 중심은 어로보다는 농경이 주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로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 크다.

이러한 해석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예컨대, 동외동 유적에서 탄화미(曹鍾擇 1984)와 울대리 고분에서 확인된 쇠낫, 연당리 고분에 출토된 쇠도끼 및 살포 등 농공구류의 존재는 고성지역 정착민들이 농경 중심의 생업 활동에 기반

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동 수단과 식량 저장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산물은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고정성 패류의 집중적 채취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 농경 사회에서는 기후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농업만으로 식량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패류 등 자연 식량 자원을 병행 활용하는 생계 전략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고성지역에서 확인된 어패류의 출토 양상을 살펴볼 때, 어망 등을 이용한 집단적 어로 방식보다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채취 활동이 중심이었음을 시사한다. 즉, 소규모 어로 활동은 불안정한 식량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에 따른 어로의 형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패류의 생태적 특성과 채취 가능 시기를 고려할 때, 주요 어로 활동은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이듬해 4월까지의 시기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주요 패류인 굴·고동류·홍합 등의 채취 시기와 가오리·참돔·농어 등의 어획 시기가 늦가을에서 봄에 해당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한기에 효율적인 노동력 배분을 통해 여유 인력을 다른 생산 활동에 투입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고성지역 정착집단의 복합적이고 유연한 생계 전략을 반영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고성지역 어로집단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어로를 병행하는 ‘겸업 어민’ 형태를 유지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 V. 맺음말

앞서 삼한·삼국시대 고성지역의 어로문화를 살펴보았다. 고성 동외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이후 수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다. 그러나 어로와 관련된 연구 자료는 상대적으로 정제된 실정이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까지 보고된 자료를 종합하여 당시 어로문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성지역에서는 직구침 형태의 낚싯바늘과 소량의 어망추가 확인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패류는 주로 조간대와 조하대에 서식하는 종들로, 굴·고동류·바지락·홍합 등이 확인되었다. 어류는 연골어류인 상어류 및 가오리류와 경골어류의 참돔과 농어가 확인되었다.

고대 고성지역의 어로 활동은 내수면 어로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어로구 및 어종을 통해 살펴보면, 패류는 고정성 패류가 주를 이루며 내만의 갯벌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패류 채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류 포획은 전문성이 강조된 직구침 형태의 낚싯바늘을 통해 연안과 기수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외동 유적의 입지는 동시기 남해안 패총의 입지와는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 남해안 패총은 하나의 내만에 위치하는 반면, 동외동 유적은 고성만과 당항만이라는 두 개의 내만에 인접하여 어로 활동을 영위하였다. 또한 어획지로의 이동에는 도보와 송학천을 통한 하천 이동이 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포획 대상인 굴은 근대 어업 보고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나무집계를 이용해 채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획된 어패류는 거주지까지 운반되어 소비되거나 젓갈 등의 발효식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어로 양상을 종합해 볼 때, 고성지역의 어로집단은 농업을 병행하는 겸업 어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어로활동과 농업을 효율적으로 병행하며 생산적인 생계 방식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삼한·삼국시기 고성지역의 어로문화를 밝히기 위해 유적 출토 자료와 관련 기사 및 보고서 등을 비교·검토하였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일부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타 유적과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투고일 2025. 8. 26 | 심사완료일 2025. 9. 17 | 게재확정일 2025. 10. 10

## 참고문헌

『삼국사기』.

경상문화유산연구원, 2025, 『고성 동외동 유적』.

고은별, 2023, 「고성 동외동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固城 東外洞 遺蹟』, 三江文化財研究院.

곽종철, 2003, 「가야의 생업」,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소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2024, 『한국어구도감』.

국립중앙박물관, 1992, 『固城貝塚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晉州博物館, 2003, 『固城東外洞遺蹟』.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22a, 「Ⅰ. 해양척추동물」, 『2022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_\_\_\_\_, 2022b, 「Ⅱ. 해양무척추동물」, 『2022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권용태, 2007, 「소가야지역 분구묘의 형성과정 연구」, 『야외고고학』2, 한국매장문화재협회.

김건수, 1996, 「郡谷里貝塚出土 반지락의 季節性 檢討」, 『한국상고사학보』23권.

\_\_\_\_\_, 1999,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_\_\_\_\_, 2001, 「가도패총출토 자연유물 보고」, 『가도패총』, 충남대학교 박물관·한국토지공사.

\_\_\_\_\_, 2008, 「선사·고대 유적 출토 홍어류 고찰」, 『도서문화』제24집.

김규운, 2018, 「고고자료로 본 소가야의 권역과 변천」, 『한국고대사연구』92.

金在弘, 2015, 「三國時代 漁具의 地域性과 階層性」, 『武器·武具와 農工具·漁具』韓日交渉의 考古學-三國時代·古墳時代-第2回 共同研究會.

김정옥, 2010, 「마도 1호선 발굴 유물과 고려시대의 식생활」, 『태안마도1호선, 수증발굴보고서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정운, 2021, 「송학동고분군 일대 해수면 변동과 지형발달과정」, 『고성 松鶴洞古墳群에 대한 比較考古學』, 고성군·(재)삼강문화재연구원.

김지민, 2024, 『생선바이블』, 북커스.

김태식, 2000, 「역사적으로 본 소가야의 정치체」, 『묘제와 출토유물로 본 소가야』,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남종영, 2024, 『다정한 거인:평화를 부르는 고려의 생태·사회사』, 곰출판.

농상공부 수산국(이근우·서경순 역), 2023a, 『한국 수산지 I-1』, 산지니.

\_\_\_\_\_, 2023b, 『한국 수산지 II-2』, 산지니.

동서문물연구원, 2012, 『마산 현동유적 I』.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고성 동외동 패총」, 『上老大島』.

\_\_\_\_\_, 2005, 『固城松鶴洞古墳群』.

\_\_\_\_\_, 2006, 『固城邑城址』.

박승규, 2005, 「小伽耶圈의 토기변동과 대외교섭」, 『加耶의 海上勢力』, 김해시.

박종오, 2014, 「섬진강유역 강어로(江漁撈)의 문화적 의미-강굴채취 어로방식과 의례의 변화를 대상으로」, 『남도민속연구』제29집.

백승옥, 1997, 「古城 古自國의 형성과 변천」,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 신서원.

\_\_\_\_\_, 2018, 「가야지역국가 '古自國'의 재검토」,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三江文化財研究院, 2023, 『固城 東外洞 遺蹟』.

\_\_\_\_\_, 2024, 『固城 東外洞 遺蹟 II』.

- 소매경, 2022, 「남해안의 高地性集落과 環壕」, 『貝塚, 環壕 그리고 防禦』.
- 안덕임, 2017, 「참돔 비늘의 성장성 분석을 이용한 고남리 패총의 어로 및 점유 계절성 연구」, 『한국상고사학보』95, 한국상고사학회.
- 여창현, 2023, 「고고자료로 본 3~6세기 고성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천」, 『영남고고학』제96호.
- 예소원, 2019, 『바다낚시 첫걸음(上)』.
- 유병일, 2012, 「어류와 해서포유류의 포획방법에 대한 연구-영남지역 삼한·삼국시대 패총자료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제15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 이동희, 2023, 「제장(祭場)으로 본 동외동유적」, 『영남고고학』제97호.
- 이영덕, 2006, 「서·남해안 신석기시대 어로구와 어로방법」,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이용현, 2007, 「안압지 목간과 동궁(東宮) 주변」, 『역사와 현실』65호, 한국역사연구회.
- 이충민, 2011,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포유동물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기, 1997, 「小加那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 『民族文化論叢』17.
- 제임스 C.스콧, 2019, 『농경의 배신』, 책과함께.
- 曹鍾澤, 1984, 「炭化米의 稻型 鑑別」, 『上老島』.
- 하승철, 2018,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고자국」, 『문물연구』34.
- 하인수, 2006, 「동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어로구」,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固城 松鶴里 309-1番地 遺蹟-고성도서관 신축부지 내 유적-』.
- 해동문화재연구원, 2022, 『고성 송학리 309-1번지 유적』.
- 허제혁, 2005, 「포상팔국의 원인과 성격-김해지역 정치세력의 성쇠와 교역-」, 『加那의 海上勢力』, 김해시.

[인터넷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다양성정보포털(<https://fbp.nmibr.re.kr/portal/>)

# Fishing Culture in the Goseong Region during the Sam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 - Focusing on the Dongoe-dong Site in Goseong -

Lee, Su-Yeon (Curator, Gijang-gun)

This study analyzes the fishing culture of the Goseong region during the Sam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by examining archaeological data centered on the Dongoe-dong site in Goseong. Although multiple excavations have been conducted at the Dongoe-dong site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research specifically focusing on fishing-related aspects has remained relatively stagnant.

Fishing tools unearthed in the Goseong area include straight-shank fishhooks and a small number of net weights. The shellfish assemblage predominantly consists of sessile intertidal and subtidal species such as oysters, turban shells, clams, and mussels. Fish remains include cartilaginous fish such as sharks and rays, as well as bony fish including sea bream and sea bass. Through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fishing activities in the Goseong area primarily exhibited characteristics of inland water fishing, with line fishing using straight-shank hooks conducted in coastal brackish waters.

Unlike contemporaneous shell midden sites along the southern coast, the Dongoe-dong site is located adjacent to two inland bays, which likely facilitated efficient fishing activities. The main target species, oysters, are presumed to have been harvested using wooden tongs. The species diversity of shellfish and fish identified at the Dongoe-dong site tends to be relatively lower compared to other shell midden sites along the southern coast.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fishing community in the Goseong area maintained a form of 'mixed-livelihood fishermen' combining agriculture-based livelihoods with fishing.

**Key words :** Dongoe-dong site, Mixed-livelihood fishermen, Sessile mollusks, Inland water fishing, Fishing